

## “ 죄인이 취해야 할 자세 ”

### ■ 이종윤 원로목사

시편 중에 일곱 편의 참회시 중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참회한 본시는 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자세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비는 제물에는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서 유향과 함께 제단에서 불사르는 소제와 안식일마다 진설병 위에서 유향을 사르는 화제가 있는데 “기념케하는 시”라는 표제는 화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찌르는 듯한 아픔과 누르는 듯한 답답함, 만신창이의 괴로움과 코를 내두를 수 없는 악취, 허리를 펼 수 없는 통증과 속에서 불이 나는 듯한 화기,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신음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로 시인의 온갖 고통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슬픔의 강을 이룬 느낌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같이 막심한 고통 중에서도 고결한 그의 성도상을 끝까지 구기지 않는다. 자신이 당한 환난을 우연으로 돌리거나 남의 탓으로 핑계치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진노 중에도 자비를 기억해 주시기를 빌었을 뿐, 결코 짓값을 피하려고는 아니했으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과소평가하려 않고 머리까지 덮어버린 홍수의 범람으로 비유할 정도의 막중한 죄로 알고 괴로워 한 아픔 속에 통회 자복하는 모습이 본 시에서 나타나 있다. 사유에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회개에는 고통이 동반하게 마련인데 그것은 징계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징계를 초초한 자신의 죄에 대한 가책과 그 죄를 끊어 버리려는 아픔을 포함한다.

오늘날 신앙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두려움도 없이 죄를 범하고 죄책감도 없이 짓값인 고통만 면케 해 달라고 뻔뻔스럽게 떼를 쓰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양심의 마비요 기도의 타락임을 알아야 한다. 범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 은닉하거나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전가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행위는 죄 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하는 간악한 행위이거늘 대다수의 범죄자들이 이러한 수법을 좀처럼 탈피하지 못한다. 죄를 범하고도 태연해 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후예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다. 다윗의 시는 자신이 범한 죄가 항상 눈 앞에 어른거려 죄책감에 떨고 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 죄를 범한 탓에 죄인이 되었다기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시인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한다. 나병처럼 참담한 자신의 죄를 인간에 대한 가해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가해 행위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나병환자의 결레에 사용되는 우슬초로 즉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주께 자복하고 빛을 당감하듯 말소하고 세탁하듯 씻으며 살균하듯 내심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시기를 빌었으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잊지 않았다. 이밖에는 죄인이 사함 받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으로 전에 가까웠던 친지들의 이반과 이로 인하여 기고만장해진 원수들의 조소 때문에 그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다. 시인은 벗들의 배신과 원수들의 조소에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처럼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처럼 침묵으로 일관할 뿐 일체 변박을 아니한다. 그들의 배신과 조소가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회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열납하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변명이나 반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인의 깊은 신앙과 높은 인격에서 풍기는 교훈이 크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면 실망, 좌절을 금치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양망하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된다. 친구의 이반도 원수의 모함도 불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시인은 “나를 버리지도” “멀리하지도” 마시고 “나를 속히 도우소서” 기도 중 기도요, 은복 중 은복의 소원을 아뢰다. 불회개에 대한 또 다른 진노를 가중시키는 우매한 죄를 짓지 말고 회개와 재기의 아름다운 성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628호] 2019년 1월 26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	John 4:24 .....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ess Ae Soon Jang
Hymn .....	2 .....
Scripture Reading .....	Psalm 102:1-28 .....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But You, O Lord" .....
* Hymn .....	263 (I hear the Savior Say) .....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635 .....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b>우리의 비전 (vision)</b></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교회 QR코드</p>
-------------------------------	--	--

<p><b>부 목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p> <p><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p> <p><b>선교사</b>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애(타이완), 필리핀,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씩, 이경엽, 알로를, 비사누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p>	<p style="text-align: center;"><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p>
--	--

	<p>천국시던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b>서울교회</b></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b>이종윤</b>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p>	<p>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p>

## “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

■ 시 84 : 5 ~ 7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여호와께 의탁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실 때, 그 길을 ‘시온의 대로’ 라고 합니다. 시인은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시온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5절).

1. 시온의 성막을 사랑하는 자  
본문은 시온의 성막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으로 그 표현을 달리합니다. 시온의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므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곳으로 구약의 성막, 성전을 거쳐 회당을 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신약시대에 교회로 이어져 왔습니다. 마음에 시온이 대로가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시온의 성막,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시인은 시온의 성막에 대한 사무치는 사모함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돌을 애타해 그리워하다가 쇠약해져 온몸과 마음으로 살아 계신 주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현실에서 처할 수 있는 아픔과 시련으로 인해 울부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2. 예배를 사모하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곳을 사모하고 늘 그리면서 그 곳으로 달려 나가는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사모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봉사하며 섬기는 그 자리에는 성막의 은혜가 넘칩니다.

3. 시온의 대로를 마음으로 걷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3대 명절 때마다 시온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시온성에 도달하려면 마치 막으로 큰 길을 지나야 했는데 그 큰 길을 ‘시온의 대로(Highways to Zion)’ 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문자적으로는 시온으로 가는 큰 길 또는 교회로 나가는 큰 길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 또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는 영어로 ‘Valley of Baca’ 라고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눈물 골짜기를 경유하지 않고는 시온의 대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휘파람을 불며 가는 여행길이 결코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는 길은 메마른 골짜기도,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눈물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그간의 지나간 시간 동안의 순례의 길은 모두 헛것이 되고 맙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5절).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5절의 말씀은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은 자라야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힘을 얻어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시온 성에 들어가는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의 능력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타납니다. 성도가 메마르고 눈물나는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주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고통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십니다.

**맺는 말**  
울해도 우리의 삶속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골짜기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인 시온성에 들어가 기까지는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멀리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7절).  
내 안에 있는 힘은 언젠가는 고갈되지만, 그 힘이 원천이 영원불멸하신 하나님 안에 힘이 있기에 우리는 그 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와 마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성도가 구할 것은 눈물의 골짜기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골짜기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울 한해도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힘으로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고 눈물의 바가 골짜기를 통과하는 은혜의 길을 온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갔음을 고백하는 복된 한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장석남 목사 설교요약

